

제 1 교시

국어 영역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A] 내 골방의 커-튼을 걷고
정성된 맘으로 황혼을 맞아들이노니
바다의 흰갈매기들같이도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B] 황혼아 네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내 뜨거운 입술을 맘대로 맞추어 보련다
그리고 네 품안에 안긴 모-든 것에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C] 저-십이성좌의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종소리 저문 삼림 속 그윽한 수녀들에게도
시멘트 장관 위 그 많은 수인(囚人)들에게도
의지할 가지 없는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을까

[D] 고비사막을 끊어가는 낙타 탄 행상대에게나
아프리카 녹음 속 활 쏘는 인디언에게라도
황혼아 네 부드러운 품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

[E] 내 오월의 골방이 아늑도 하오니
황혼아 내일도 또 저-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
암암(暗暗)히 사라지긴 시냇물 소리 같아서
한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 이육사, 「황혼」 -

(나)

차운 물보라가
이마를 적실 때마다
나는 소년처럼 울음을 참았다.

길길이 부서지는 파도 사이로
견잡을 수 없이 나의 해로(海路)가 일렁일지라도

나는 홀로이나라,
나는 바다와 더불어 홀로이나라.

일었다간 스러지는 감상(感傷)의 물거품으로
자폭(自暴)의 잔(盞)을 채우던 옛날은
이제 아득히 띄워보내고,

원뿔을 내어맡긴 천인(千仞)의 깊이 위에
나는 꽃처럼 황홀한 순간을 마련했으니

슬픔이 설사 또한 바다만 하기로
나는 뉘우치지 않을
나의 하늘을 꿈꾸노라.

- 김종길, 「바다에서」 -

-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수미상관 기법으로 구조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 축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 묻고 답하는 형식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색채어를 사용하여 시적 공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반어적 표현을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A]: '바다의 흰갈매기'에 빗대어 '인간'이 '외로운' 존재임을 부각하고 있다.
 - [B]: '황혼'의 '손'에 '입술'을 '맞추어 보'려는 것에서 '모-든 것'에 '입술'을 '보내'려는 것으로 인식이 확장되고 있다.
 - [C]: '의지할 가지 없'이 '떨고 있'는 존재들이 '별들', '수녀들', '수인들'에게 위로 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D]: '지구의 반쪽'을 '타는 입술'에 맡겨달라고 하며, '행상대'나 '인디언'을 향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 [E]: '오월의 골방'에서 '아늑'함을 느끼면서 '내일도' '커-튼'을 걷어 '황혼'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나)를 '과거-현재-미래'의 시간 구조를 바탕으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화자는 '차운 물보라'와 같은 시련을 겪었던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군.
 - 화자는 '부서지는 파도' 속에 '해로가 일렁'이는 상황에도 현재 '홀로'임을 느끼고 있군.
 - 화자는 '물거품'같이 '일었다간 스러'졌던 과거의 자신에 대한 미련으로 인해 '원뿔을 내어맡'기며 현재의 바다와 맞서고 있군.
 - 화자는 '자폭의 잔'을 채우던, '옛날'이라는 부정적 과거가 '아득히' 사라져 현재의 자신과 단절되기를 바라고 있군.
 - 화자는 자신이 느끼는 '슬픔'이 '바다만 하'더라도 '뉘우치지 않을' 수 있는 미래의 삶을 지향하고 있군.

4.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시에서는 대립적 구조를 이용해 시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가)에는 화자가 머무르고 있는 골방 안과, 만물을 포용할 수 있는 황혼이 존재하는 골방 밖 세계의 대립이 나타난다. 커튼이 쳐진 골방 안의 고립성과 골방 밖 세계의 개방성이 대립 구조를 이루며 화자의 인식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나)에서 바다와 하늘은 상하 공간 구조의 대립을 이루고 있다. 부정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 바다와 긍정적 대상인 하늘을 대비하여 나타냄으로써 화자의 내면 상황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① (가)에서 화자는 ‘커-튼을 걷’는 행위를 통해 골방 안과 골방 밖 세계라는 대립적 구조를 이루는 두 공간이 연결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군.
- ② (가)에서 골방 안에 있는 화자는 골방 밖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들 중에서 소외된 상황에 놓인 존재들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황혼의 포용성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군.
- ③ (가)에서 화자는 골방 밖 세계에 있는 황혼에게 자신의 바람을 전달함으로써 골방 안이라는 고립된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군.
- ④ (나)에서 화자는 ‘천인의 깊이’의 바다를, 이와 대비를 이루는 ‘꿈꾸’어야 할 하늘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내면의 슬픔을 극복하려 하고 있군.
- ⑤ (나)에서 화자는 ‘이마를 적’시는 바다에 ‘울음을 참’으며 대응하던 소극적 자세에서 ‘꽃처럼 황홀한 순간’을 마련하여 하늘을 향해 나아가려는 능동적 자세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군.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일자무식에 머슴살이 하던 민시영은 아내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십 년 동안 학업에 전념하기로 약속하고 고향을 떠난다. 북한산에 사는 월봉대사는 민시영의 사연을 듣고, 남편에 대한 아내의 정성에 감동 받아 그를 가르치게 된다.

이 이후로부터 문밖을 나서지 아니하고 오륙 년을 공부하니 진실로 아름다운 선비가 되었다.

생이 하루는 여쭙었다.

“공부가 점점 안정(眼睛)*에 열리되 이목(耳目)에 한 번도 시험치 못하였으니 일시(一時) 과장(科場)을 구경하고 싶나이다.”

대사가 말하기를,

“아직 말라. 네 마땅히 과거 시험 할 날이 있으니 그리 알라.” 하시니 차후로 다시 청치 못하고 또 수년을 보내니 문사(文辭)가 자못 뛰어나 통달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일일은 대사가 갑자기 물었다.

“네 정시(庭試)를 보고자 하는가?”

생이 말하였다.

“진실로 원하는 바이로되 과장의 기구가 없사오니 어찌 하오리까?”

대사가 말하기를.

“네 무슨 근심이 있나뇨? 내 이미 장치(裝置)하였노라.”

하고 인하여 폐글제를 써주되 ‘한군신(漢君臣)이 하득제갈량(何得諸葛亮)이라.’하고 써주며 스스로 한 수(首)를 짓고 또 생으로 하여금 지으라 하시며 말하기를,

“장중(場中)에 들어가 만약 네 이런 글제를 보거든 두 수(首)중에 네 소원대로 써 바치라.”

하고 이미 장치하였던 필목을 내어주며 읊(擘)을 맞아 보내며 당부하였다.

“만약 천은(天恩)을 입어 폐하를 보면 응당 묻는 말씀이 있을 것이니 내게 와 고하던 대로 조금도 숨기기 말고 고하되 조심하고 조심하라.”

생이 재배(再拜)하고 말하였다.

“삼가 가르침을 받들겠나이다.”

하직하고 떠나 장중에 들어가니 대포 소리 한 번 울리며 글제를 판상에 내어 걸거늘 쳐다보니 선생의 가르치던 글제와 같은지라. 머리를 숙이고 사례하여 말하였다.

‘선생의 명령이로다.’

그제야 선생이 지어주신 한 수를 써 문하(門下) 중에 던졌다. 조금 있다 우레같은 소리 일장(一場) 중에 시끄러워 놀라 들으니 민시영 성명 석 자를 과장에 두루 다니며 외치는 소리였으나 아는 자가 없었다. 민생이 생각하였다.

‘선생이 나를 보내실 제 이름은 시영이라 하고 자는 공화라 하옵기로 이로써 봉내(封內)에 넣었더니 진실로 나 아닌가?’ 주저하고 바랄 제 호명하는 자가 모습을 살펴 그가 민시영인 줄을 알고 말하였다.

“그대가 민시영이 아닌가?”

곧 앞서 이끌며 몰아내자 따라 들어가 전정(殿庭)에 숙배하니 임금이 물으시기를,

“선조는 누구고 살기는 어디며 생장고락(生長苦樂)은 어떻게 지냈는가?”

라 하였다. 생이 감히 사정을 숨기지 못하여 하나같이 대사가 가르치던 대로 전후의 수말(首末)을 낱낱이 대사의 앞과 같이 하니 임금이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다. 내 어젯밤 몽중(夢中)에 어떠한 도사 한 분이 와 날더러 이르기를 ‘폐글제는 이러한 글제를 내라.’ 하되 그 연고를 해득치를 못하였더니 이제야 그 부인의 지성을 상제(上帝)께옵서 감응하시어 내 마음을 깨치게 함이라. 또 몽중 도사는 너의 선생 월봉대사요, 글제의 ‘하득제갈량이라.’하는 것은 내 시영을 얻을 징조로다. 오호라, 고인(古人)이 이르기를, ‘가빈(家貧)에 사현처(思賢妻)요, 국난(國難)에 사양상(思良相)이라.’ 하였으니 내 나라가 어지러움을 근심함에 또한 양상을 얻었고 네 가빈하니 또 양처를 얻었도다. 나를 도와 감히 사정을 숨기지 아니하니 장차 반드시 너를 기다려 헤아리지 못할 높은 지위로서 특별히 유사(有司)에게 명하겠노라.”

(중략)

소비가 말하였다.

“아까 일각문 밖의 어깨춤 추던 걸인을 몰아내었더니 곧 서당에 들어가 도련님을 무릎 위에 앉히고 ‘나는 네 아버지, 너는 내 아들이라.’하니 이것이 무슨 변괴리오?”

발을 구르고 실색하니 부인 역시 크게 놀라 급히 나가 문틈으로 엿보았다. 비록 구 년 전 안목을 하룻밤 보았으나 말소리를 모를소냐? 허허 길게 탄식하고 돌아 들어와 이불을 덮어쓰고 스스로 하는 말이,

“집 떠난 지 구 년 만에 굶주림과 추위가 자못 심하여 떠돌아 다니다가 고향 생각 간절하여 돌아온 것이 괴이하도다. 대장부가 아녀자와 더불어 십 년의 기약을 서로 하였는데 저다지 신의 없이 돌아오니 어찌 그러리오? 비록 그러하나 잠깐 용모를 살펴보니 티끌의 때가 없고 정수리에 은은한 정기가 있고, 미간에 아름다운 태도를 감추고 있으니 의관은 남루하나 완연히 진흙 속의 옥이 티끌 밖에 드러나 있도다. 반드시 무슨 거동이 있을 것이라. 손질을 살펴보니 품되고 걸식하던 모습도 아니도다. 기약을 어겨서 혼연히 받아들이면 이는 반도지폐(半途之廢)*가 될 것이니 물리쳐 나중의 모습을 보리라. 고인이 이르기를, 옛날 소진(小進)이도 그 아내에게 곤박함을 보고 스스로 공부한 지 삼 년 후에 육국(六國) 상인(相印)*을 차고 다시 만났다고 하였으니 이와 같이 하리라.” 이를 갈고 앉았으니 조금 있다가 아이 들어와 부인에게 고하였다. “아버지 밖에 와서 안으로 들어올 마음으로 나로 하여금 모친 앞에 고하라 하더이다.” 부인이 듣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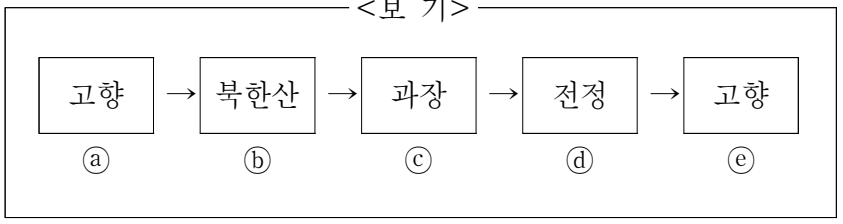
[B] “이 어찌한 말이며, 이 어찌한 말이고? 네 아버 생별할 때에 정연(定然)이 언약하기를 한 십 년 기약하되 만일 기약 전에 돌아오면 비록 구 년 선달 이십구 일이라도 맹세코 서로 아니 볼 양으로 서로 약속하였으니, 부군이 어찌 기약을 어기어 돌아올 이치 있으랴? 설사 참으로 네 부친이라도 나는 반드시 보지 아니 할 것이니 이는 천만부당한 일이라. 혹 중간 무뢰배가 네 아버와 동무함에 정담(情談)의 말을 듣고 간사하게 자기 마음대로 이 유를 지었을 것이니 신속히 쫓아내라.”

- 작자 미상, 「민시영전」 -

*안정: 눈동자. 여기서서는 학문에 대한 안목을 가리킴.
 *가빈에 사현쳐요, 국난에 사양상이라: 집안이 가난하면 현명한 아내가 생각나고, 나라가 어려우면 어진 재상이 생각한다.
 *반도지폐: 일을 중간에서 그만 둠.
 *상인: 재상의 도장.

5.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민시영은 월봉대사가 허락할 때까지 과거 시험을 보게 해 달라고 거듭 부탁하였다.
 - ② 월봉대사는 과거 시험에서 사용할 필묵을 준비하지 못한 민시영을 꾸짖었다.
 - ③ 임금은 민시영의 뛰어난 글재주를 칭찬하며 그가 겪은 일에 대해 물어보았다.
 - ④ 절인의 정체를 눈치 챈 소비는 그를 도련님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였다.
 - ⑤ 부인은 아들과 함께 있는 절인의 말소리를 통해 그가 남편임을 알아보았다.

6. <보기>는 윗글에 나타난 공간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민시영이 a를 떠난 사연은 b에서 월봉대사의 마음이 움직이는 계기로 작용한다.
- ② 민시영이 c에서 겪은 일은 b에서 월봉대사가 의도한 대로 전개된 것이다.
- ③ d에서 임금이 한 말을 통해 c의 상황이 예정되어 있었음이 드러난다.
- ④ d에서 임금이 유사에게 내리겠다고 말한 명에 따라 민시영은 아름다운 의관을 갖추어 e로 돌아온 것이다.
- ⑤ e에서 부인이 민시영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민시영이 a에서 부인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돌아왔기 때문이다.

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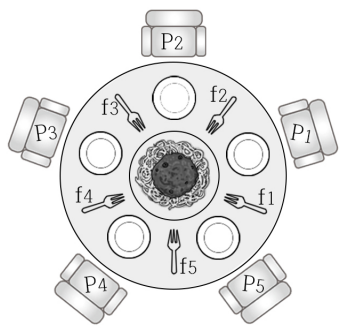
「민시영전」은 영웅소설의 계열에 속하지만, 일반적인 영웅소설과 달리 이 작품에는 초월적 능력을 지닌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으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영웅적 행위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 작품은 민시영이라는 평범한 인물이 아내와 신이한 능력을 지닌 조력자의 도움으로 학업을 성취하고 입신양명하는 성공담을 담고 있다. 이때 주인공인 민시영보다 더 부각되는 인물은 그의 삶을 변화시킨 아내이다. 우부(愚夫)인 민시영의 성공은 무엇보다 아내의 정성과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 ① 임금이 영웅적 행위를 보여 주지 않은 민시영에게 높은 지위를 내리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 평범한 인물이 입신양명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임금이 나라의 어지러움을 근심하는 것을 통해 민시영이 국가적 위기를 해결할 초월적 능력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임금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부인이 소진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민시영을 쫓아내려는 것을 보니, 정해진 기한만큼 남편을 학업에 정진하게 하려는 아내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군.
- ④ 월봉대사가 민시영에게 제시한 글제와 임금에게 제시한 글제가 동일한 것을 보니, 민시영이 신이한 능력을 지닌 인물의 도움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임금이 민시영의 이야기를 들은 후 그에게 양처를 얻었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민시영의 삶이 변화하는 데 아내의 정성이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군.

8.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에 대해 현재 자신이 깨달은 바를, [B]는 지난 일을 언급하며 자신이 결심한 바를 드러내고 있다.
 - ② [A]는 말은 일에 대해 상대방이 책임을 다하기를 요구하고, [B]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 ③ [A]는 [B]와 달리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상대방의 행동을 만류하고 있다.
 - ④ [B]는 [A]와 달리 불가피한 상황을 가정하여 자신의 입장을 하소연하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자신의 상황을 언급하며 상대방이 마음을 바꾸기를 권하고 있다.

[9~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컴퓨터 과학자 데이크스트라가 고안한 ‘철학자의 만찬 문제’는 컴퓨터 내에서 여러 프로세스*가 서로 점유하고 있는 자원을 얻기 위해 상대방의 작업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대기하는 ‘교착 상태’와 특정 프로세스가 원하는 자원을 계속 할당받지 못하는 ‘기아 상태’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로 활용된다.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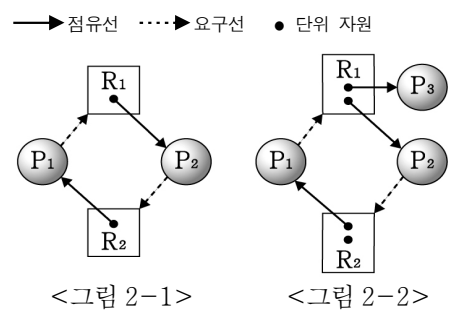
<그림 1>처럼 다섯 명의 철학자(P1~P5)가 앉아 있는 자리 왼쪽에 포크(f1~f5)가 각각 하나씩 놓여 있다고 하자. 가운데 놓인 스파게티를 덜어 오기 위해서 철학자는 양옆의 포크를 동시에 이용해야 하며, 다른 철학자가 사용 중인 포크는 사용할 수 없다. 또 모든 철학자 Pn이 왼쪽의 포크 fn을 먼저 든 다음 오른쪽 포크 fn+1을 들어서 스파게티를 가져오기로 약속했을 때, 스파게티를 가져오기 위해 모든 철학자가 동시에 왼쪽 포크를 들게 되면, 오른쪽에는 남은 포크가 없어 모두가 무한정 서로를 기다리는 교착 상태가 발생한다. 또한 교착 상태가 해결되더라도 여러 이유로 특정 철학자에게 포크를 들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 특정 철학자만 스파게티를 먹지 못하는 기아 상태가 발생한다. 컴퓨터에서도 마찬가지로 CPU나 메모리 등과 같은 공유 자원을 이용해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교착 상태와 기아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

‘철학자의 만찬 문제’에 대해 데이크스트라는 ① 모든 철학자 Pn이 동시에 포크 fn을 집을 때 P5만 f1을 집도록 하면 적어도 한 명은 식사를 할 수 있어 교착 상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실제 교착 상태는 예방, 회피, 발견 및 복구의 방법으로 해결 가능한데, 우선 교착 상태의 네 가지 필요조건 중 하나를 부정함으로써 교착 상태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교착 상태는 자원에 대한 배타적인 통제권을 요구하는 ‘상호 배제 조건’, 프로세스가 할당된 자원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자원을 기다리는 ‘점유 대기 조건’, 프로세스가 어떤 자원의 사용을 끝낼 때까지 그 자원을 사용할 수 없는 ‘비선점 조건’, 프로세스가 순환적으로 다음 프로세스가 요구하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순환 대기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발생한다. 이에 따라 여러 프로세스가 공유 자원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 배제 조건을 부정하거나, 특정 프로세스의 실행 전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미리 할당하여 점유 대기 조건을 부정하는 방법, 자원에 고유한 순서를 할당하여 순환 대기 조건을 부정하는 방법 등으로 교착 상태를 예방한다. 하지만 어떤 자원들은 근본적으로 동시에 공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호 배제 조건은 부정할 수 없다. 한편 교착 상태를 예방하는 과정에서 장치의 이용률과 속도가 저하되고 기아 상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교착 상태를 회피하는 방법으로는 ‘은행원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100달러를 가지고 있는 은행이 있다고 하자. A, B, C의 고객이 각각 최대 60달러, 40달러, 50달러를 빌리려고 한다. 은행은 현재 A, B, C고객에게 각각 30달러를 빌려준 상황이다. A, B, C고객들은 각각 30달러, 10달러, 20달러의 돈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지만 은행은 고객들

에게 돈을 빌려주고 남은 10달러만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은행은 대출 가능한 10달러 전부를 B고객에게 빌려주고 그 고객이 돈을 갚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A고객이나 C고객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다. B고객에게 남은 돈을 먼저 빌려주면 모든 고객의 요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두 가지 경로의 안전 순서열(B-A-C, B-C-A)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시스템 내에 안전 순서열이 존재하는 상태를 ‘안전 상태’라고 하는데, 이러한 안전 상태에서만 프로세스에 자원을 분배함으로써 교착 상태를 회피할 수 있다.

또한 교착 상태를 발견하여 복구하기도 하는데, 교착 상태를 발견하는 방법으로는 ‘자원할당 그래프’를 이용한다. 자원할당 그래프는 프로세스와 자원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시하여 순환 대기 조건을 발견함으로써 교착 상태를 판단한다.



<그림 2-1>

<그림 2-2>

자원 Rn으로부터 프로세스 Pn으로 향하는 화살표를 점유선, 프로세스 Pn에서 자원 Rn으로 향하는 화살표를 요구선이라고 했을 때 <그림 2-1>처럼 서로 공유하는 자원 R1, R2를 두고 점유선과 요구선이 순환하는 형태일 때 교착 상태임을 발견할 수 있다. 또 <그림 2-2>처럼 순환 구조가 존재하더라도 R2처럼 한 가지 종류의 자원에 동일한 단위 자원이 여러 개 있어 프로세스의 요구대로 자원 할당이 가능하거나, P3처럼 순환 구조에서 독립적으로 단위 자원을 점유하고 있어 반납한 단위 자원을 P1에게 할당할 수 있을 경우 교착 상태로 보지 않는다.

교착 상태가 발견되면 교착 상태 해결을 위해 시스템을 교착 상태 이전으로 복구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교착 상태를 복구시키는 방법으로는 주로 교착 상태에 속한 프로세스들을 중지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되는 자원이나 시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스템의 성능 저하가 교착 상태로 인해 발생하는 성능 저하보다 큰 경우 발견된 교착 상태를 무시하기도 한다. 또 다양한 방법으로 교착 상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내 특정 프로세스에 기아 상태가 발생할 경우 새로운 프로세스의 시작을 보류하도록 조치하여 기아 상태를 해결한다. 이와 같은 교착 상태와 기아 상태의 해결을 통해 컴퓨터의 운영 체제는 각 프로세스를 위한 공유 자원들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 프로세스: 실행 중인 프로그램.

9. 밑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프로세스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미리 할당할 경우 교착 상태가 발생한다.
- ② 안전 순서열이 여러 개 존재하는 상태에서 자원을 분배할 경우 교착 상태가 발생한다.
- ③ 교착 상태를 무시할 경우 교착 상태로 인해 발생하는 컴퓨터의 성능 저하를 막을 수 있다.
- ④ 교착 상태에 속한 프로세스를 중지시킬 경우 시스템을 교착 상태 이전으로 복구할 수 없다.
- ⑤ 특정 프로세스만 원하는 자원을 계속 할당받지 못할 경우 새로운 프로세스의 시작을 보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0.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P5가 f1을 집으면 P5가 f2도 집게 되어 식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 ② P5가 f1을 집기 전에 P1이 f1을 집게 되어 P1이 식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 ③ P5와 P1이 f1을 집기 위해 경쟁하는 동안 P2가 식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 ④ P5가 f5를 집지 않으면 P4가 f4와 f5를 집게 되어 식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 ⑤ P5가 f1과 f5를 모두 집지 못해 P1과 P4가 동시에 식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11. 철학자의 만찬 문제를 교착 상태의 발생 조건과 관련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특정 철학자에게 포크 두 개를 미리 지정해 주는 방법은 점유 대기 조건을 부정하는 방법이겠군.
- ② 만찬 중 두 철학자가 하나의 포크를 동시에 공유할 수 없으므로 상호 배제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철학자들이 다른 철학자가 사용 중인 포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선점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교착 상태를 발생시키는 조건을 부정하여 교착 상태를 예방하더라도 특정 철학자가 식사를 못 하는 기아 상태가 발생할 수 있겠군.
- ⑤ 철학자들이 집는 포크에 고유한 순서를 할당하여 순환 대기 조건을 부정하더라도 상호 배제 조건을 부정할 수 없다면 교착 상태가 발생하겠군.

12. [A]를 참고했을 때, <보기>의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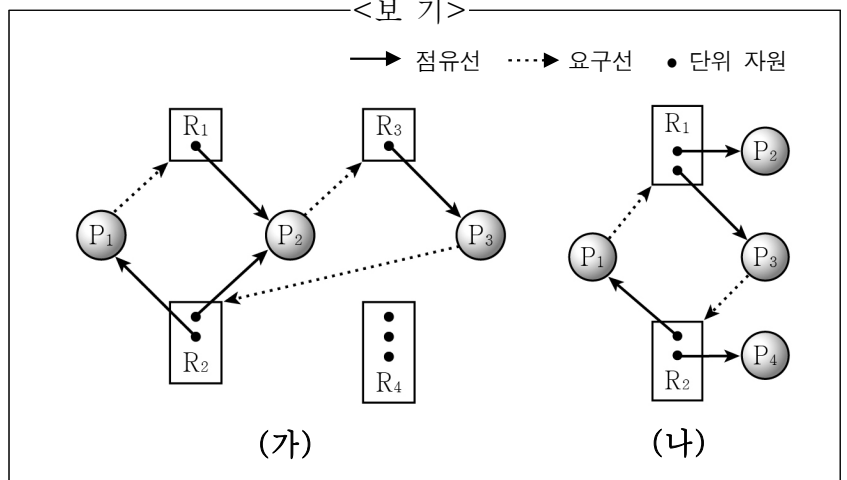
< 보 기 >

프로세스 \ 자원	현재 할당량	최대 요구량	추가 요구량	사용 가능량
P1	2	12	10	6
P2	4	㉠	㉡	
P3	4	13	9	
P4	2	8	㉢	

* 시스템에는 한 가지 종류의 자원만 존재하며, 자원의 총량은 18인 경우를 가정함.

- ① ㉠가 12일 경우, <보기>의 시스템에는 안전 순서열이 한 가지만 존재한다.
- ② ㉡가 8보다 크다면, <보기>의 시스템은 안전 상태가 아니다.
- ③ P4의 최대 요구량과 현재 할당량을 고려했을 때, ㉢는 6이다.
- ④ <보기>의 시스템에 P4로 시작하는 안전 순서열만 존재한다면, ㉡는 ㉢보다 크다.
- ⑤ <보기>의 시스템이 안전 상태라면, P1과 P3으로 시작하는 안전 순서열은 존재하지 않는다.

1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자원할당그래프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가)에는 할당되지 않은 자원 R4가 있어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② (가)의 R2에는 동일한 단위 자원이 두 개 있어 P3의 요구대로 자원 할당이 가능하다.
- ③ (나)에서 P1이 요구한 자원은 P3이 사용하던 자원을 반납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 ④ (나)는 P2와 P4가 순환 구조에서 독립하여 R1과 R2의 단위 자원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교착 상태로 볼 수 없다.
- ⑤ (가)는 (나)와 달리 순환 구조 내 모든 공유 자원이 프로세스에 할당되어 있다.

[14~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풍아(風雅)*의 깊은 뜻을 전하는 이 그가 뒤신고
고조(古調)*를 좋아하나 아는 이 전혀 없네
정성(正聲)*이 하 아득하니 다시 불러 보리라

<제1곡>

위의(威儀)도 거룩하고 예모(禮貌)*도 넓을시고
해학을 좋아하나 가혹함이 되을소냐
아마도 성덕지선(盛德至善)을 못 잊을까 하노라

<제3곡>

좌상(座上)의 손이 있고 술통에 ㉠술이 가득
중심(中心)*을 즐길지니 외모를 위할소냐
덕음(德音)이 밝으시니 곧 반응이 나타나리라

<제4곡>

이 해 저물었으니 아니 놀고 어찌하리
즐거움을 좋아하나 거칠음은 말지어다
아마도 직사기우(職思其憂)*야 그가 어진 선비일까 하노라

<제5곡>

두었던 종고금슬(鐘鼓琴瑟)* 날로 즐겨 놀지어다
백년 후 돌아보오 화옥(華屋)*의 누가 들소냐
생전에 다 즐기 못하면 누우칠까 하노라

<제6곡>

- 권익룡, 「풍아별곡(風雅別曲)」 -

* 풍아: 시문을 짓고 읊는 풍류의 이치.
* 고조: 옛 곡조. 여기서는 옳은 소리를 담은 옛 곡조를 뜻함.
* 정성: 옳은 소리. 또는 옳은 곡조의 음악.
* 예모: 예절에 맞는 몸가짐. * 중심: 마음속.
* 직사기우: 마땅히 그 근심을 생각함.
* 종고금슬: 종, 북, 거문고, 비파. * 화옥: 화려하게 지은 집.

(나)

베개 베고 시를 얻어 계속 읊조리자니 枕上得詩吟不輟
 마구간의 마른 말도 더욱 길게 우는구나 羸驂伏櫪更長鳴
 밤 깊어 초승달은 그림자를 만들고 夜深纖月初生影
 고요한 산 찬 솔도 절로 소릴 내누나 山靜寒松自作聲
 늙은 종이 재를 털자 등불은 밝아지고 老婢撥灰明兀兀
 아내는 ㉠술을 퍼와 내게 권해 따라주네 孺人挹酒勸唧唧
 얼큰해져 이불 덮고 다시 높이 누웠자니 醉來捉被還高臥
 가슴 속에 불평 있음 깨닫지 못하겠네 未覺胸中有不平

- 박은, 「야와송시유감(夜臥誦詩有感)」 -

(다)

서파삼우(西坡三友)란 나의 벗 이이립이 스스로 지은 별호이다. 이이립은 사람들 중에서 호걸이다. 소년에 육경(六經)에 통하여 우리 유학에 명성을 독차지하였고, 을유년 과거에 급제하여 대간(臺諫)을 역임하고 인물을 선발하는 직무를 맡아 10년을 벼슬길에 있으면서 공로와 이름이 현저하니, 하늘이 낸 재능이라 일컬을 만하다. 기해년 가을에 벼슬에서 물러나 남방으로 돌아와 영천(永川)의 서파리(西坡里)에 살면서 스스로 짓기를 서파삼우(西坡三友)라 하니, 세 벗이란 확대경과 빨잔과 쇠칼이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벗과 떨어져 혼자 사니 사람들이 나와 벗하지 않고, 나도 또한 사람들과 사귀려 하지 않았다. 이에 세 물건으로 벗을 삼으니, 확대경으로서 끊이는 것을 맡게 하고, 빨잔으로 술을 숭상하고, 칼로 생선을 회하여 혼자서 술 붓고 마시니 이내 취하고 배가 불렀다. 생선 나고 쌀 나는 시골에 살면서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그들을 벗으로 취한 까닭이다. 자네는 이 뜻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덧붙여 의미를 부여해 주기 바란다.” 했다.

나는 벗이라는 것이 그 마음의 덕을 벗하는 것이니 진실로 벗할 덕이 있다면 사람과 물건을 모두 벗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사람이 허다하게 물건으로 벗을 삼았다. 그런데 물건 중에 취하여 벗으로 삼을 것이 이것만이 아니거늘, 반드시 이로써 벗을 삼은 것을 어찌 참으로 입으로 먹고 배를 채우기 위한 계책이라고 하겠는가. 그가 겸손하게 말한 것이다.

내가 보기에 확대경은 불을 취하는 기구이다. 한 번 그 불을 얻어 꺼지지 않게 하면 그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이 없다. 마치 마음의 밝은 덕을 한 번 밝혀 그치지 않게 하면 그것이 다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 불을 취한 자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 반드시 날로 새롭고 또 새로운 공(功)이 있으리니 어찌 불을 화덕에 피울 뿐이겠는가. 빨잔은 바로 빨로 된 것이니 가운데가 비었고 안으로 향하여 아래로 임하는 길이 있다. 거기에 들어간 것이 맑거나 흐리거나 물건을 포용하는 아량을 품고 있다. 이것을 쓰는 자가 그 덕을 생각하면 반드시 도를 즐기고 선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어찌 석 잔 술의 의미를 알지 못할 우려가 있겠는가. 칼이라는 것은 쇠이다. 가을의 기운과 부합하니 그 덕은 예리한 데에 있다. 그 예리함을 물체에 쓰매 진평은 고기를 공평하게 잘 나누었고, 정치에 쓰매 여회는 일을 결단력 있게 잘 처리했다. 칼을 잡고 용도를 자세히 살피고 칼을 성급하게 쓰지 않는다면 남들이 어찌 감히 옳은 말을 거역하겠는가. 안으로 스스로 몸을 닦는 방법과 밖으로 백성에 임하는 도리가 실로 이 세 가지에 갖추어져 있다.

공자가 일컬은 ‘유익한 벗[益友]과 맹자가 논한 바 ‘존경하는 벗[尙友]’이라는 말이 본래 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벗을 얻었으니 벗을 취하는 법을 안다고 이를 만하다. 그 취하여 잘 쓰는 바가 어찌 작겠는가. 훗날에 예를 갖춘 부름에 응하고 대신의 직책을 받아서, 백관을 진퇴시키고 일세의 인재를 길러내어, 위로 군왕의 치화(治化)를 돕고 아래로 청사(靑史)에 아름다운 이름을 전하게 되면, 반드시 이 삼우(三友)에게 힘입지 않았다고 하지 못할 것이다. 아, 대장부가 이 세상에 나서 때를 만나고 못 만나는 것은 운명이다. 그러나 바야흐로 밝은 임금이 위에 있어 천지가 조화를 이루고 만물이 무성하게 이루는 도가 새로우니 함께 나아갈 때이다. 내 어찌 기뻐하지 않겠는가. 마땅히 눈을 씻고 기다리겠노라.

- 유방선, 「서파삼우설(西坡三友說)」 -

14.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대구의 형식을 사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 ② (나)는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 ③ (다)는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인간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를 통해 시간의 경과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다)는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인물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15.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는 작가가 간성 지역의 군수로 재직하던 시절, 자신을 찾아온 손님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창작한 작품이다. 그는 당시 불리던 노래들이 사대부에게 적합하지 않으므로 옳은 소리를 담은 노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모두 흥겹게 즐기자는 내용 속에 부분적으로 권계의 내용을 담았다. 이 작품에는 현재를 즐기되 그것이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낙이 불음(樂而不淫)’ 사상과 중심(中心)을 지키는 것이 사대부의 바람직한 자세라는 교훈이 담겨 있다.

- ① ‘고조’를 아는 사람이 없고 ‘정성’이 아득하니 다시 불러 보겠다며 옳은 소리를 담은 노래가 사대부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군.
- ② ‘해학’과 ‘즐김’을 좋아하지만 그것이 남을 괴롭히거나 거칠어서는 안 된다는 절제를 강조하는 낙이불음 사상을 드러내고 있군.
- ③ ‘좌상’에 손님이 있다는 것과 ‘이 해’가 저물었으니 즐겁게 놀자는 것을 보아 자신을 찾아온 손님들과 현재를 즐기고자 하는군.
- ④ ‘외모’를 위하기보다 ‘중심’을 즐기라는 것을 보아 걸치레보다 마음속을 지키는 것이 사대부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하는군.
- ⑤ ‘종고금술’로 날마다 즐겨 노는 것은 ‘화육’을 꿈꾸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권계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군.

16.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확대경’의 기능을 바탕으로 ‘이이립’이 밝은 덕을 밝혀서 지닐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② ‘나’는 벼를 취하는 법을 아는 ‘이이립’이 새로운 때를 만나 나라를 위해 능력을 펼치기를 기대하고 있다.
 - ③ ‘나’는 ‘이이립’의 이야기를 듣고, 벼슬에서 물러난 사람들이 나아갈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 ④ ‘나’는 ‘뿔잔’의 생김새를 바탕으로 이를 벗 삼은 ‘이이립’이 모든 것을 포용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⑤ ‘나’는 ‘칼’의 특성을 바탕으로 관직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공평함과 결단력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17. <보기>를 바탕으로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대상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문학 작품에서 대상을 인지하는 주체는 교감을 통해 대상이 자신의 행동에 반응한다고 느끼기도 하고, 대상에 보편적 속성 이상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이때 대상은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일 수도 있는데, 그 기저에는 모든 만물과 교감이 가능하다는 문학적 상상력이 존재한다.

- ① (나)에서 ‘시’를 읊자 ‘말’도 길게 운다고 한 것으로 보아 화자는 대상이 자신의 행동에 반응하고 있다고 느낀 것이겠군.
- ② (나)에서 ‘늙은 종’이 재를 털어 ‘등불’을 밝히는 것은 화자뿐만 아니라 늙은 종도 자연과 교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나)에서 ‘초승달’이 그림자를 만들고 ‘술’도 소리를 낸다고 한 것은 화자가 자신을 둘러싼 자연과 교감을 하고 있다는 문학적 상상력을 보여주는 것이겠군.
- ④ (다)에서 ‘이이립’이 자신의 별호를 스스로 ‘서파삼우’라고 지은 것으로 보아, ‘이이립’은 사물에 보편적 속성 이상의 의미를 부여했겠군.
- ⑤ (다)에서 ‘나’가 ‘세 벗’의 의미를 ‘이이립’ 대신 설명해 주는 것으로 보아, ‘나’는 ‘이이립’과의 교감을 통해 그가 사물로 벗을 삼은 이유를 알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18.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에게 감흥을 자아내는, ㉡은 화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소재이다.
 - ② ㉠은 화자가 풍류를 즐기게 하는, ㉡은 화자의 근심을 잊게 하는 소재이다.
 - ③ ㉠은 화자의 소박한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은 화자의 유유자적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④ ㉠과 ㉡은 모두 화자가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소재이다.
 - ⑤ ㉠과 ㉡은 모두 화자가 현실에 대응하는 자세를 성찰하도록 이끄는 소재이다.

[19~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가들은 상대적 우위를 갖는 재화는 수출하고 상대적 열위를 갖는 재화는 수입하여 쌍방 간 이득을 취한다. 국제무역의 기본 모형인 리카르도 모형은 이러한 무역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리카르도에 ㉠ 따르면, 무역할 재화, 즉 교역재가 상대적 우위를 가지려면 생산비를 줄여야 한다. 생산비란 어떤 제품 1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 즉 노동소요량을 시간당 임금과 곱한 값이므로 각국은 기술력을 ㉡ 높여 노동소요량을 줄이거나 값싼 노동력으로 임금을 줄임으로써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한 나라에서 특정 재화가 상대국에 대해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갖는지 여부는 ‘상대적 임금’과 ‘상대적 생산성 우위’의 비교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상대적 임금이란 자국의 임금을 상대국의 임금으로 나눈 값이고, 상대적 생산성 우위란 상대국의 노동소요량을 자국의 노동소요량으로 나눈 값인데, 각국은 상대국에 대한 자국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자국의 상대적 임금보다 높은 제품에 생산비 우위를 갖게 된다. 그리고 각국은 이렇게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갖는 제품을 상대국에 수출하게 된다.

그렇다면 ㉢ 이렇게 선택적 생산을 통한 무역이 양국 모두에게 정말 이득이 될까? 아래의 <표>를 바탕으로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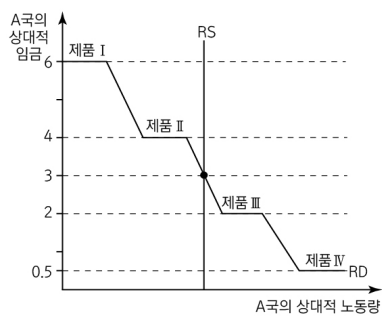
제품의 종류	A국의 단위당 노동소요량(a)	B국의 단위당 노동소요량(b)	A국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b/a)
I	1	6	6
II	3	12	4
III	6	12	2
IV	18	9	0.5

<표> A국과 B국의 노동소요량과 A국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

제품의 종류와 무관하게 A국의 시간당 임금이 B국의 3배, 즉 A국의 상대적 임금이 3이라고 가정할 때, A국은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3보다 큰 제품I과 II는 수출하고 3보다 작은 제품III과 IV는 수입하고자 할 것이다. 이때 A국이 수입하는 제품III을 1단위 생산하는 데 B국은 12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A국의 상대적 임금이 3이므로 B국의 12시간 노동이 A국에게는 4시간 노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A국에서 4시간 노동을 위해 필요한 임금으로 B국에서 제품III을 1단위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현재 A국의 노동소요량인 6시간과 비교했을 때 제품III을 A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B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두 국가 모두에게 이득임을 알 수 있다. 같은 논리로 나머지 제품의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 따져 보면 제품IV는 B국에서, 제품I과 II는 A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두 국가 모두에게 이득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상대적 임금과 국제무역의 연관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화의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시장가격이 정해지듯 노동량의 수요와 공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약 B국에 대한 A국의 상대적 임금이 현재보다 높아진다면, A국에서 생산되는 재화들은 상대적으로 더 비싸질 것이다. 그러면 해당 재화에 대한 B국의 수요량은 감소하게 될 것이고, 그만큼 A국 노동에 대한 수요도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A국이 더 적은 양의 재화를 생산하는 동안 B국이 해당 재화를 생산하기 시작하면 A국의 노동 수요는 더 감소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A국의 상대적 임금이 3에서 3.99로 변했다고 가정해 보자.

<표>에서 A국이 수출할 제품의 품목은 변하지 않겠지만, A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여 제품에 대한 수요량도, A국의 노동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다 상대적 임금이 3.99에서 4.01로 약간 더 상승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제 제품Ⅱ를 생산하는 국가는 A국이 아니라 B국이 될 것이다. B국이 새로운 산업을 추가하는 동안 A국의 노동에 대한 수요는 이전 대비 급격하게 하락할 것이다. 이러한 A국의 변화를 그래프로 ㉔ 나타내면 <그림>과 같다. 노동에 대한 상대적 수요 곡선(RD)이 계단 형태를 띠는 것은 수출 제품의 품목



<그림>

은 그대로이나 상대적 임금의 증가로 인해 해당 제품에 대한 수요만 감소하는 경사 구간과, 상대적 임금의 증가가 결국 생산 제품의 변화로 이어져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수요가 상대국으로 점차 이동하는 수평 구간이 번갈아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동의 상대적 공급 곡선(RS)이 수직 형태를 띠는 것은 임금이 변해도 A국 내에서 가용 가능한 노동량이 바로 변하기는 ㉔ 어렵기 때문이다. B국에 대한 A국의 상대적 임금은 RS와 RD의 교점에서 결정되며, RS가 좌우로 이동하면서 교점이 경사 구간에 형성되면 A국과 B국 중 한 나라에서, 수평 구간에서 생기면 A국과 B국 모두에서 그 구간에 해당하는 재화를 생산하게 된다.

이렇게 상대적 임금을 고려해 교역재를 정하더라도, 수송비에 따라 그 품목은 달라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A국이 <표>의 제품Ⅲ을 수입하는 데 드는 단위당 수송비가 제품Ⅲ의 단위당 생산비와 동일하게 요구된다고 가정해 보자. B국에 대한 A국의 상대적 임금이 3일 때, 생산비만 고려한다면 B국의 12시간 노동은 A국의 4시간 노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수송비까지 고려한다면 결국 8시간 노동에 해당하는 것과 같아진다. 이 경우 현재 A국의 6시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제품Ⅲ을 A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유리해진다. 이처럼 상대적 임금을 고려해 무역재를 선정해도 수송비가 얼마냐에 따라 교역재는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소비재인 비교역재가 될 수도 있다.

1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선택적 생산이 상대적 임금을 낮추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② 노동자의 임금이 교역재 선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③ 교역재와 비교역재의 생산비 산출 방법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④ 수출국이 수입국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⑤ 재화 생산에 필요한 노동의 공급이 노동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임금이 일정할 때,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시간을 줄이면 생산비가 낮아진다.
 - ② 한 나라 안에서는 임금이 상승해도 가용 가능한 노동량이 즉각적으로 증가하기 어렵다.
 - ③ 값싼 노동력으로 임금을 줄이더라도 노동소요량을 줄여야만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 ④ 상대국보다 임금이 낮은 국가도 그보다 임금이 높은 상대국에서 재화를 수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 ⑤ 한 국가의 상대국에 대한 상대적 임금이 특정 재화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보다 낮으면 그 재화의 생산비도 상대국보다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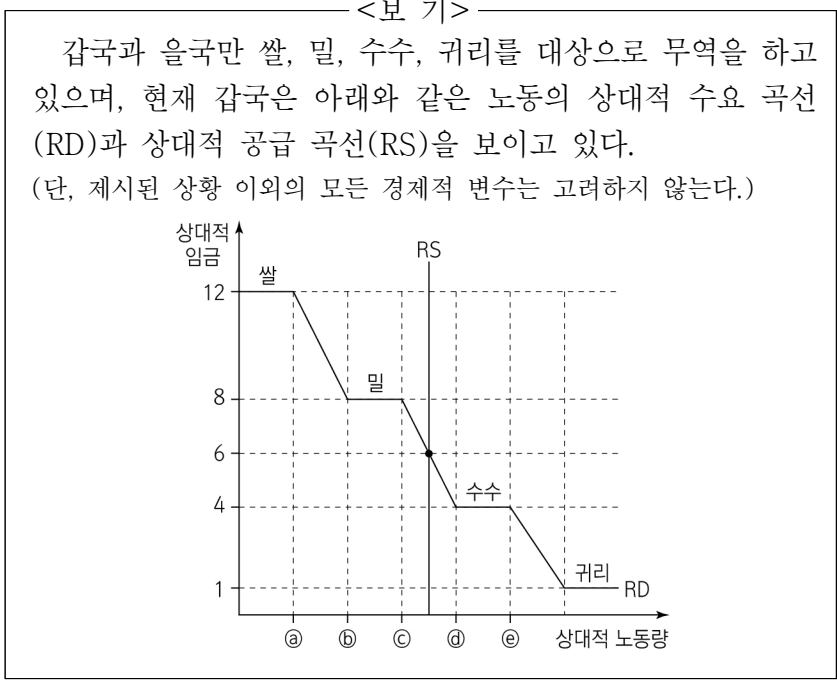
21.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사과와 바나나를 생산하기 위한 X국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2만 원, Y국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 원이다. 사과 1kg을 X국에서 생산하려면 4시간의 노동이, Y국에서 생산하려면 12시간의 노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바나나 1kg을 X국에서 생산하려면 6시간의 노동이, Y국에서 생산하려면 9시간의 노동이 필요하다.

- ① X국에서 사과 1kg을 생산하려면 8만 원의 생산비가, Y국에서 바나나 1kg을 생산하려면 9만 원의 생산비가 소요되겠군.
- ② X국이 기술력을 높여 바나나 1kg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을 4시간으로 줄인다면 바나나 생산에 있어서의 생산비 우위는 X국이 차지하게 되겠군.
- ③ Y국에 대한 X국의 상대적 임금을 고려할 때, Y국에서 사과 1kg을 생산하는 데 드는 노동시간이 X국의 입장에서는 6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사과의 생산에 있어서 X국이 Y국에 대해 갖는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바나나의 생산에 있어서 X국이 Y국에 대해 갖는 상대적 생산성 우위보다 높게 나타나겠군.
- ⑤ X국과 Y국 모두, 사과와 바나나 중에서 상대국에 대한 자국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2보다 큰 과일은 수출하고 2보다 작은 과일은 수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겠군.

22.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RS와 RD의 교점이 a와 b 사이로 이동하더라도 쌀 생산비에 우위를 갖는 국가는 바뀌지 않겠군.
- ② RS와 RD의 교점이 b와 c 사이로 이동할 경우 밀 생산을 위한 노동 수요의 일부가 을국에서 갑국으로 이동하겠군.
- ③ RS와 RD의 교점이 c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갑국에서 생산하는 밀에 대한 을국의 수요량은 점차 줄어들게 되겠군.
- ④ RS와 RD의 교점이 d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갑국이 생산하는 밀의 가격은 현재 대비 상대적으로 낮아지겠군.
- ⑤ RS와 RD의 교점이 d와 e 사이에서 형성될 경우 갑국과 을국 모두에서 수수를 생산하게 되겠군.

23. 수송비를 고려했을 때, ㉑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선택적 생산을 통한 수출은 수송비가 자국의 생산비보다 적게 소요될 때에만 이익이 된다.
 - ② 선택적 생산을 통한 수출은 자국의 수송비가 상대국의 수송비보다 더 적게 소요될 경우에만 이익이 된다.
 - ③ 선택적 생산을 통한 수출은 수송비가 부과되더라도 상대국에 대한 자국의 상대적 임금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익이 된다.
 - ④ 선택적 생산을 통한 수출은 수송비가 부과되었을 때에도 상대국에 대한 자국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그대로 유지되어야만 이익이 된다.
 - ⑤ 선택적 생산을 통한 수출은 자국의 생산비와 수송비를 모두 고려했을 때의 동일 임금 대비 노동시간이 상대국보다 적은 경우에만 이익이 된다.

24. 문맥상 ㉑~㉓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㉑: 고인의 뜻에 따라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다.
 - ② ㉒: 그는 모두 함께 참여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 ③ ㉓: 나는 그에게 왜 책을 돌려주지 않느냐고 따졌다.
 - ④ ㉑: 그들은 슬픈 감정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애썼다.
 - ⑤ ㉒: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그는 다른 사람을 돕는다.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편집국 안에 들어섰을 때, 그가 두려워하고 있던 예측이 이젠 어쩔 수 없게 된 것을 최초로 그에게 느끼게 해준 것은 국내(局内)에서 심부름하는 계집애의 표정에서였다. 여느 때 그 계집애는 만화가를 만화 속의 인물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탓인지 그를 보기만 하면 웃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며 헛가버리곤 하는 것이었는데, 그날은 제법 나뭇이 ‘안녕하세요’를 하고 나서 미소를 띄운 채 그의 얼굴을 똑바로 올려다보는 것이었다.

그것이 극히 잠깐 동안이었지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던 그에게 모든 걸 알 수 있게 해주었다. 계집애가 자기를 올려다보던 맑은 눈 속을 살짝 스치고 가던 게 어찌면 연민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하자 분노보다도 오히려 전신에서 맥이 빠져나가는 것을 그는 느끼면서 굳어진 얼굴로 문화부를 향하여 갔다.

자기들의 데스크 앞에 앉아 있던 몇 명의 기자들이 여느 때와 달리 유별나게 반갑게 인사할 때는 그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자기도 덩달아서 지금 작별을 하듯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잠시 동안 그는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알 수 없었다. 흐르던 시간이 갑자기 끊어지면서 공백이 생기는구나 하는 생각이 알 수 없는 부끄러움과 함께 그를 엄습했다. 그러고 있는 그를 문화부장이 구해줬다.

㉑ “오늘치 만화 좀……”

하면서 문화부장은 손을 내밀었던 것이었다. 그는 당황해졌다. 그가 짐작하고 있던 사태 속에서는 문화부장의 지금 얘기는 불필요한 게 아닌가. 그는 옆구리에 끼고 있던 서류봉투를 살그머니 좀더 힘을 주어 끼면서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빨개진 얼굴을 손바닥으로 닦으며 말했다.

㉒ “그러오지 않았는데요.”

말하고 나서 그는 금방 후회했다. 어찌면 자기의 짐작이란 게 얼토당토않은 게 아닐까…… 자기의 신경과민으로 자기는 지금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나 문화부장의 다음 말은 그의 그러한 희망에 찬 기대를 산산이 부숴버렸다.

㉓ “그럼 알고 계셨군요.”

문화부장은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그에게 말했다.
“차나 한잔 하러 가실까요?”

할 얘기가 있다는 암시를 그에게 주면서 문화부장은 그의 앞장을 서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아주 섭섭하게 됐습니다. 썩 오랫동안 함께 일해왔었는데……” 다방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자 문화부장은 그에게 말했다.
“저는 이형(李兄)을 두둔했습니다만…… 국장님도 이형의 만화에는 항상 칭찬을 하셨는데…… 그…… 독자들이 자꾸 투서를……”

“아니 사실 재미가 없었지요. 제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는 문화부장이 우물쭈물하고 있는 게 미안해서 얼른 말을 받았다.
“아니지요. 독자들이 이형의 유머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뿐이지요.”

[중략 줄거리] 신문사에서 해고당한 그는 다른 신문사의 문화부장을 찾아가 차 한잔 마시자고 권하며 만화 연재를 부탁한다. 그러나 문화부장은 신문사에 돈을 쓰지 않는 사장을 핑계로 부탁을 거절하고 찾값을 먼저 계산한다. 그는 만화가인 김선생을 만나 술을 마시며 자신에게 해고를 통보한 문화부장에 대해 이야기한다.

“㉠ 문화부장이 차나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그는 속으로는, 자기가 만화 연재를 부탁하러 갔던 ㉡ 문화부장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었다.

“다방에 가서 그 양반이 그러더군요. 사람 웃기는 방법의 몇 가지 패턴을 안다고 곧 만화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 양반이 그랬어요. 두꺼비 같은 눈알을 부러리면서 말합니다.”
 찻값을 앞질러 내버리던 그 키가 작달막한 문화부장. 날 무척 무안하게 해줬었지.

[A]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는 미역국이다, 이거죠.”
 자기네 사장이 얼른 뒤통수 때려달라는 기도를 하라던 그 사람. 난 참 면목이 없어서 혼났지.
 “차나 한잔. 그것은 일종의 추파다. 아시겠습니까, 김선생님?” 그는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그 속에서 성실을 다했던 하나의 우연이 끝나고……”
 그는 술을 한모금 꿀꺽 마셨다.
 “새로운 우연이 다가온다는 징조다. 해해, 이건 낙관적이죠, 김선생님?” 그는 김선생이 방금 비워낸 술잔에 취해서 떨리는 손으로 술을 따랐다. “차나 한잔. 그것은 이 회색빛 도시의 따뜻한 비극이다. 아시겠습니까? 김선생님, 해고시키면서 차라도 한잔 나누는 이 인정. 동양적인 특히 한국적인 미담…… 말합니다.”
 ㉢ “그, 어린이 신문에 그리고 있는 거라도 열심히 하고 있게. 기다리면 또 뭐가 생길 테지.”
 김선생이 술잔을 들면서 말했다.
 “자, 드세.”
 그는 자기의 술잔을 잡으려고 했다. 잘못해서 술잔이 넘어져 버렸다. 그는 손가락 끝에 앞질러진 술을 찍어서 술상 위에 ‘아톰X군’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
 “㉣ 자, ‘아톰X군’, 차나 한잔 하실까? 군과도 이별이다. 참 어디서 헤어지게 됐더라.” 그는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는 다른 손으로 자기의 이마를 한번 찰싹 때렸다. 골치가 쭈셨기 때문이다. “오, 화성인들의 계략에 빠져서 군이 포로가 되어…… 바야흐로 생명이 위협해져 있는 데서 ‘다음 호에 계속’이었군…… 미안하다. ‘아톰X군’…… 사람들은 항상 그런 걸 요구하거든. 아슬아슬한 데서 ‘다음 호에 계속.’”
 그는 다 그려진 ‘아톰X군’의 얼굴을 다시 손가락 끝에 술을 찍어서, 지우기 시작했다. “미안하다, ‘아톰X군’. 어떻게 군의 힘으로 적진을 뚫고 나오기 부탁한다. 이제 난…… 힘이 없단 말야. 나와 헤어지더라도…… 여보게, 우주의 광대하고.” 그러면서 그는 양쪽 팔을 넓게 벌렸다. “어두운 공간 속에서 영원한 소년으로 살아 있게.”

- 김승욱, 「차나 한잔」 -

25.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빈번하게 장면을 전환하여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과거의 장면을 삽입하여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인물의 말과 내적 독백을 교차하여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대화를 통해 상황에 대한 인물 간의 시각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을 병치하여 인물 간의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

2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그’의 만화를 형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 ② ㉡: 자신의 해고를 짐작하며 ‘문화부장’에게 말하고 있다.
 - ③ ㉢: ‘그’가 만화를 그려 오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기다리면 새로운 일거리가 생길 것이라며 해고당한 ‘그’를 위로하고 있다.
 - ⑤ ㉣: ‘아톰X군’을 더 이상 그리지 않으려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27. ㉠와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해고 상황을 국장의 탓으로 돌려 책임을 회피한다.
 - ② ㉡는 만화가의 자질에 대해 말하며 ‘그’의 행동 변화를 유도한다.
 - ③ ㉡는 ㉠와 달리 ‘그’에게 먼저 차를 마시자고 권한다.
 - ④ ㉠와 ㉡는 모두 ‘그’의 능력을 인정하지만 ‘그’의 제안은 거절한다.
 - ⑤ ㉠와의 만남과 ㉡와의 만남은 모두 ‘그’에게 부정적 감정을 유발한다.

2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작품은 만화가가 겪는 하루의 사건을 통해 1960년대를 살아가는 소시민의 생계에 대한 불안과 비애를 드러낸다. 작품에서 만화가는 만화를 충실히 연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해고를 당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 하지만 실패한다. 작가는 이 과정에서 인물의 상황과 심리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비유적 표현, 모순 형용 등을 활용한다. 또한 자신이 그리는 만화 속 가상의 인물에게 말을 하는 상황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기도 한다.

- ① ‘그’가 ‘계집애’의 표정을 보며 ‘두려워하고 있던 예측이 이젠 어쩔 수 없게 되었다고 느끼는 모습을 통해 해고로 인해 생계를 걱정하는 ‘그’의 불안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그’가 자신의 해고를 ‘미역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해고당하는 상황을 비유적 표현을 통해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그’가 자신의 해고를 ‘새로운 우연이 다가온다는 징조’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해고한 신문사로부터 다시 만화 연재를 의뢰받게 되리라는 기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그’가 ‘차나 한잔’의 의미를 ‘이 회색빛 도시의 따뜻한 비극’이라고 말하는 것은 해고를 당한 ‘그’의 비참한 심리를 모순 형용을 통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그’가 ‘아톰X군’의 얼굴을 술상 위에 그렸다 지우며 ‘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해 느끼는 무력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29~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하나의 개체로 존재하다가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는 채 ㉠ 소멸되어 버리는 운명에 처해 있다. 인간이 처해 있는 이 실존적인 불안은 세상의 모든 개체들이 다른 모든 개체들과 수평적 모순 관계 속에, 그리고 개체의 존재와 소멸을 주관하는 미지의 절대적 존재와 수직적 모순 관계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수평적 모순’은 개체들 간의 다름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뜻하며, ‘수직적 모순’은 절대적 존재가 개체에게 늘 알 수 없음으로 남아 있어 비롯되는 갈등을 뜻한다. 이 실존적 불안에 인간은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

폴리스가 형성되기 전의 고대 그리스에서 절대적 존재는 각 개체에게 미지(未知)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폴리스가 형성된 후의 서양 철학에서는 이 절대적 존재에 대해 규명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이성의 힘을 통해 절대적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혀 수직적 모순과 수평적 모순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서양 철학에서는 절대적 존재의 본질에 해당하는 보편적 원리를 밝히면 이를 통해 개체들의 다름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동일성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모든 개체들이 모순이 없는 체계 속의 정당한 구성 요소들로 규정됨으로써 개체의 정체성 또한 확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보편적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체들의 이해는 서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서양 철학에서는 절대적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놓고 논리적 정당화의 과정을 통해 다투는 방식인 ‘쟁론’이 중요해졌다.

중국 상고 시대의 경우에도 인간의 삶을 주관하는 절대적 존재는 미지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춘추 시대 이후 공자의 사상을 ㉡ 계승한 학자들의 관심은 절대적 존재와의 수직적 관계로부터 인간과 다른 인간들과의 수평적 관계인 인아(人我) 관계로 ㉢ 이동해 갔다. 그들은 절대적 존재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외면하였고 다툼을 일으키는 수평적 개체들끼리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에 집중했다. 그들은 집단에서 공유할 수 있는 인(仁) 또는 예(禮)와 같은 구체적인 도덕적 가치를 마련함으로써 각 개체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체보다 집단의 질서를 우선시하여 그 집단의 가치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한 집단에서 조화를 이루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가치에 따르며 자신을 드러내기를 삼가는 방식인 ‘장보’가 중요해졌다.

이 두 방식은 실존적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과 해결의 과정이 모두 다르지만 인간이 그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유사하다. 그러나 전자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절대적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 개체가 끝없이 답을 내려도 그것이 절대적 존재에 대한 개체 나름의 해석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후자는 불안을 ㉣ 해소하기 위해 절대적 존재와의 관계를 외면하고 집단 내에서 개체 간의 모순을 해결하는 데에만 집중한다는 점에서 부분적인 해결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 두 방식은 도시 문명이 본격화되며 성곽 안의 공간에서 완벽한 지배 질서를 모색하기 시작한 시기에 고안된 인간 중심적인 방식이다.

반면 이들과 다른 또 하나의 방식이 있다. 가장 원시적인 이 방식은 개체에게 다가오는 수직적, 수평적 모순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하며, 절대적 존재를 알 수 없음의 상태

그대로 둔다. 개체의 능력으로 절대적 존재의 본질을 규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도 자체가 무용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개체 간의 모순 또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각 개체는 모두 절대적 존재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으므로 개체들은 절대적 존재로부터 카리스마를 부여받은 대상에 자신을 맡기고 이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간다. 여기서 ‘카리스마’는 절대적 존재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능력을 뜻한다. 개체들은 자신이 밭 딛고 살아가는 환경에 맞춰, 카리스마를 부여받아 절대적 존재를 대리하는 대상에 임시적으로 기생(寄生)하며 그 대상의 변화에 따라 모이고 흩어지기를 반복한다. 이 방식은 실존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절대적 존재를 규명하지도 외면하지도 않는다. 그들에게 실존적 불안은 해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지 카리스마를 부여받은 대상에 제각각 기생하는 것을 곧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아 살아간다.

앞의 두 방식과 비교할 때 이 방식의 특징은 모순을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는 점과 ㉤ 개체의 정체성을 임시적인 것으로 그래서 언제나 양보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는 점이다. 쟁론이나 상보를 중시하는 방식이 최근 2, 3천 년 이래에 문명이 발달하면서 생겨난 인간 중심의 도시의 논리라고 한다면 이 방식은 인간이 지금까지 거쳐 온 몇 십만 년의 시간과 삶 속에서 모든 생명체들과 함께 존재 양식으로 온몸에 각인해 온 야생의 논리라 할 수 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인간이 가진 ㉥ 월등한 지각이라는 것도 사실은 실존적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다른 동물의 특화된 생존 능력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29.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실존적 불안에 대처하는 두 방식을 비교하여 분석한 후 또 다른 방식을 소개하고 있다.
- ② 실존적 불안이 형성되는 과정을 통시적으로 설명하여 사회 변화의 원인을 밝히고 있다.
- ③ 실존적 불안의 상반된 양상을 사례로 들어 여러 학설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실존적 불안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제시한 후 이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 ⑤ 실존적 불안의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차를 나열한 후 이를 통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30.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국의 상고 시대에는 수직적 모순에 대한 해결보다 수평적 모순을 해결하는 데에 집중했다.
- ② 폴리스 형성 이전의 고대 그리스에서는 절대적 존재를 규명하기 위한 시도가 나타나지 않았다.
- ③ 모순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것은 절대적 존재에 대한 개체 나름의 해석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원시적인 방식이다.
- ④ 폴리스 형성 이후 서양 철학에서는 절대적 존재와 개체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모순을 해결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 ⑤ 공자의 사상을 계승한 학자들은 개체가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에서는 개체 간의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다.

31. **쟁론**과 **상보**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쟁론은 절대적 존재를 부정하는 과정에서, 상보는 절대적 존재의 종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서 확립되었다.
 - ② 쟁론이 개체 간 다름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라면, 상보는 개체 간 다름을 아우르는 동일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 ③ 쟁론은 상보와 달리 개체의 다름을 보편적 원리를 통해 하나의 모순 없는 체계로 설명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
 - ④ 상보는 쟁론과 달리 성곽 안의 공간에서 개체가 완벽한 지배 질서를 모색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안되었다.
 - ⑤ 쟁론과 상보는 모두 개체의 존재와 소멸을 주관하는 미지의 대상을 알 수 없음의 상태 그대로 둔다.

32. 다음은 윗글을 읽은 A 학생이 작성한 활동지와 이에 대한 상호 평가 결과이다. 평가가 올바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활동 과제] '도시의 논리'와 '야생의 논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해 보자.		
A 학생이 작성한 활동지 내용		상호 평가
공통점	◦ '도시의 논리'와 '야생의 논리'에서는 모두 집단의 질서를 우선시하여 실존적 불안을 해소하고자 했다.	적절함 ㉠
차이점	◦ '도시의 논리'에서는 '야생의 논리'와 달리 개체들 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나타났다.	적절함 ㉡
	◦ '야생의 논리'에서는 '도시의 논리'와 달리 수직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절대적 존재를 규명하려고 했다.	부적절함 ㉢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33.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체 간 정체성이 충돌할 때 다른 개체의 정체성을 우선하여 따른다.
 - ② 개체가 자신의 정체성에 맞춰 대상에 카리스마를 부여하여 기생한다.
 - ③ 여러 개체들이 각인해 온 존재 양식을 모두 수용할 때까지 정체성에 대한 규명을 유보한다.
 - ④ 개체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틀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정체성을 고집하지 않는다.
 - ⑤ 카리스마를 부여받아 절대적 존재를 대리하는 대상에 맞춰 개체의 정체성이 가변적으로 정해진다.

34.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사라져
 - ② ㉡: 이어받은
 - ③ ㉢: 옮겨
 - ④ ㉣: 바로잡기
 - ⑤ ㉣: 뛰어난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